

1차 총회 실행위원회

대신 교단과의 통합결의; 5인 합동 전권위원 추대

총회 제106회기 1차 실행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가 지난 8월 8일(월) 오후 1시, 교단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대신호서 교단과의 통합을 확인하고 5인 합동 전권위원을 선임하는 등 현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는 서기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인도하였다. 서울남노회장 김정용 목사(중울산교회)가 기도한 후에 경성노회장 신연식목사(비례교회)가 마태복음 18:18-20을 봉독하였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

은혜교회)는 “그러하면 이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의 인사와 광고 후에 증경총회장 류현옥목사(동명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증경장로부총회장 김재호 장로의 기도로 속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전제 60명 가운데 57명이 출석(위임 포함)하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경성노회(노회장 박성욱 목사)와 동서노회(노회장 신장균 목사)의 교단 가입을



환영하고 축하하였다.

곧이어 본 교단과 대신호서 교단과의 통합을 만장일치 결의하고, 합동위원회(위원장 윤서구 목사)에서 요청한 5인 합동 전권위원에 박형진, 윤서구, 황호관, 임종학 이경근을 선임

하고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를 사무 배석자로 선정하고, 제107회 총회는 정상적으로 준비하되 합동 전권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결의한 후에 증경총회장 임종학목사(재연교회)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개혁대신 합동전권위원회 1,2차 회의

제107회 합동총회 준비 순항; 일정 장소 확정

*제1차 전체회의

개혁대신 합동전권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지난 8월 11일(목) 오전 11시 송도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 특별회의실에서 합동 전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계획된 합동총회의 준비에 돌입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회 예배는 위원장 박형진 목사가 인도하고 대신총회서기 배수영목사가 기도한 후에 김의철 총회장은 “한마음으로 뜻을 이루자(빌3: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 예배는 개혁총회의 합동위원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조정위원회(7월 27일)의 결의에 따라 각 총회의 파송 받은 10인으로 합동 전권위원회를 조직하고, 본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연장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합동총회 규칙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차기 전체회의에서 심의결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동총회의 명칭을 <개혁대신>으로 확정하고, 총회 임원은 정부(正副)교차 형식으로, 임원후보자들의 등록금은 면제하고, 총회 발전기금은 개혁총회의 전례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비부(상비국 포함), 상임위원 등 기구조직은 합동규칙 초안을 따르기로 하고, 양측 각각 2인씩, 4인 소위원이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를 편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보고 확정하기로 결의하고(개혁총회 황호관 목사, 박만진목사; 대신총회; 배수영 목사, 박공서 목사), 합동 전



권위원회 2차 회의는 8월 18일(목) 오전 11시에 새은혜교회(박형진 목사) 예배당에서 갖기로 하고 위원 황호관 목사(꿈꾸는 교회)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참석자

개혁총회장 박형진 목사, 합동위원장 윤서구 목사, 위원 황호관 목사, 임종학 목사, 이경근 목사, 대신총회장 김의철 목사, 서기 배수영 목사, 위원 한요한 목사, 최홍하 목사, 박공서 목사

*제2차 전체회의

합동 전권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1차 회의의 결의에 따라 제2차 전체회의를 지난 8월 18일(목), 오전 11시, 새은혜교회 당회실에서 열고 상비부서, 상비국을 비롯한 상임위

원회 조직 안을 검토하는 등 합동에 관한 합의와 준비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회 예배는 합동위원장 서기 배수영 목사가 인도하고 위원 이경근목사(평안교회)가 기도한 후에 박공서 목사가 롬 8:28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전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대신총회 김의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무에 들어갔다. 회무를 위한 기도는 위원 박공서 목사가 담당하였다. 회원 호명에 앞서 대신총회 위원 최홍하 목사를 감영식목사로 교체한다는 보고와 인사가 있었다.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한 후에 위원회의 명칭을 <합동 전권위원회>로 통일하는 등을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배포한 합동규칙을 원안(황호관 목사가 제시한 안

을 말함)대로 채택하고, 소위원 모임에서 작성한 기구조직표의 일부수정을 결의한 다음에 우선 총회장을 포함한 임원명단만을 발표하여 제107회 총회를 합동총회로 완만하게 마친 후에 통합규칙의 확정을 포함, 기구조직 등을 임원회에 맡겨서 잔무로 처리하기로 하고 개혁 합동위원장 윤서구 목사가 기도함으로 폐회하였다. 새은혜교회는 합동 전권위원들을 위하여 오찬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참석자

개혁총회장 박형진 목사, 합동위원장 윤서구 목사, 위원 황호관 목사, 임종학 목사, 이경근 목사, 대신총회장 김의철 목사, 서기 배수영 목사, 위원 한요한 목사(위임), 김영식 목사, 박공서 목사

목회서신

개혁교단과 대신교단,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어가며...



윤서구 목사
(합동위원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였다. 人-사람인 자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 하실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담아두셨음을 알 수 있다. 었4:1~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노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 노회가 행복하게 발전 할 수 있다.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울 갈 수 있다.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합치면 그 시너지는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 두 마리가 짐을 끌면 산술적으로 몇 톤의 짐을 끌 수 있겠는가? 12톤이라는 것이 산술적인 답이다. 그런데 소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짐을 끌면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시너지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의 대역사의 결정체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가 많다. 그 장애물은 바로 악한 마귀의 이간질과 반목,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알방한 자존심이고 이기심이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을 추진하면서 악한 마귀의 이간질과 반목의 역설저하게 내려놓음으로 하나됨의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급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교단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개혁교단(박형진 총회장)과 대신(김의철 총회장)측과 대 통합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주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이번에 우리 개혁 교단과 합동을 추진하게 된 대신교단은 김의철 총회장(송도가나안교회)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대신 총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교단과 신학과 신앙이 동일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교단이다.

대신측(김의철 총회장)은 8개 노회 150여개체의 교회로 조직되어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번에 합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단의 외연확장도 중요 하였지만, 무엇보다 신학과 신앙의 일치성과 순수함을 높이 평가하고 추진하였음을 강조하여 알고 싶다.

이 지면을 통해서 합동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릴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먼저는 박형진 총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결단이 있었기에 합동을 추진 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노심초사 수고해주시는 합동위원회 위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행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동위원을 맡고 전권을 위임해주셔서 일사철리로 합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통합에 필요한 모든 절차적 합의를 마치고, 합동 합의문도 작성하였으며, 합동총회 장소와 일정을 확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교단 합동의 결정체를 완만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의 지원역시 기대한다. 시편133: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됨은 개인적인 영광이요, 교단적인 대사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제107회 총회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무한 감사하는 바이다.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소집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른 총회를 지키고자 적극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107회 합동 총회가 소집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박형진 목사

- 주제 : “하나됨의 열정” (엡4:4-6)
- 일시 : 2022년 9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송도가나안교회당 (담임 김의철 목사)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34-17
(전화 032-859-5000)

※ 전국노회 목사, 장로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박형진 목사
서 기 : 김정호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社 說

합동총회를 기대하시라.

개혁교단은 제 90회 대전총회 시에 맘 모스 교단 합동 측의 일반 교회 운동의 재물이 되어 합동도 아닌, 영입도 아닌, 새 가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흡수당한 뒤로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통탄의 세월이 아프기만 하다.

90회 총회당시 개혁총회의 합동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팔래스 호텔의 마지막 순간을 한시도 잊지 못한다. 영입인지 합동인지를 묻는 작은 목사의 목소리는 거대한 흡수 앞에 여지없이 묻혔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뒤로하고 조리하게 눈물을 흘리며 빠져나오던 그 흑역사의 현장을 어찌 잊겠는가?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흘러서 17년째인데 가슴이 패어지는 것을 보면 9월이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한가 보다. 합동이라니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더구나 105회 총회를 앞두고 가열 차게 달려 나가다가 암초에 부딪쳐서 무산된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합동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9월 총회를 준비하는 아픈 계절에 꿈처럼 찾아온 합동 소식! 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결혼해서 10년 넘게 새 생명의 소식을 기다려온 놀다리 새댁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기 시작한 입덧만 같다. 조심해야 한다. 행여 불운이라도 겹치면 어찌겠는가? 먹는 것도 골라 먹고, 바쁜 걸음을 걸어서도 안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꿈이라도 생각도 말아야 한다. 미운 것은 쳐 다도 보지 말고, 악한 생각일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형이라도 태어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울수록 조심은 열배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건강한 육동자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명의를 찾아가 진단도 받아야 하고, 주치의의 세심한 지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무리 약이 오르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행여 아가가 놀래서 경기관도 일으키면 아가가 불행하고 산모는 얼마나 아플 것

인가?

9월 그 날을 기다린다. 그 시간이 어찌 이리 더디다는 말인가? 17년간 당한 서러움과 부끄러움을 온전히 보상 받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열심히 모이고, 이쁘게 말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욕심은 금물이다. 아니 욕심은 죄의 어머니. 그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불러들인다는 원초적인, 상식적인 사실을 잘도 알면서 내려놓지를 못한다. 욕심덩어리를 말이다.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하면 그게 가당하겠는가? 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 사이에서 감은 깨지고, 너도, 나도 못 먹고 만다.

이제는 내 것이라 말하지 말자. 우리 것으로 바꿔 말하자. 그래야 한다. 그래야 산다. 도토리 키 재기라지 않는가? 크면 얼마나 크겠는가? 한 치, 아니 한 눈금도 크지 못하다. 재보고 달아 붙을 어찌겠는가?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 마음으로 바뀌면 하나가 된다. 열 사람이 모이면 열 마음이고, 백이 모이면 백 마음인데 어찌 하나이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이 답이다. 그런데 오묘한 진리가 있다. 그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님 마음이다. 너도, 나도, 열이든 백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지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얼마나 쉬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주문처럼 알고 있으면서 합력하려들지를 않는다. 나누고, 쪼고 까불고 그러다가 깨뜨리고 만다. 같은 목적, 같은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 이제 조용하게, 결코 내대지 말고, 그렇게 그 감격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번에가 아니면 평생 아기를 품에 안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 때에 아파하고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어찌 믿음 없이 조바심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이제라도 그 날을 기대하며 힘을 합해서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제107회기 공천위원회

통합총회 규칙에 의하여;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까지

제107회기 공천위원회(위원장 정완득 목사)는 지난 8월 15일(월) 오전 11시 교단 본부 회의실에서 공천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 편성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천위원장 정완득목사(전주성인교회)목사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 등 가구의 조직은 교단 통합전권위원회에서 제정한 통합규칙을 따랐으며, 양측에서 제출한 총대 명단을 기초로 조각하였다.

한편 합동 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2차 회의에서 가구의 조직 대원칙을 확정 한 바 있다. 그 원칙에 의하면 각 총회 별로 독자배정하고 양측 소위원(4인)들이 조정된 후에 합동 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서 상비부(상비국 포함)와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상비부장, 서기, 회계, 그리고 위원장, 서기, 회계를 각각 결정하고 임용태 목사(한빛교회)의 지도로 폐회하였다.

참석자: 개혁총회 공천위원회 소위원: 정완득 목사, 신연식 목사, 임용태 목사, 합동 전권위원회 소위원: 배수영 목사, 박공서 목사, 황호관 목사, 박만진 목사.

전북 중부노회 교역자회

주언교회 예배당에서 8월 정례 교역자회 개최

전북중부노회(노회장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교역자회는 지난 8월 1일(월)에 개척교회인 주언교회(담임교역자 임미향준목) 예배당에서 8월 정례교역자회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역자회 서기 이향원목사(00 교회)가 인도하고 노회서기 박숙희목사(동산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인도자가 마태1:1~6, 16절을 봉독한 후에 주언교회 담임교역자 임미향준목이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진행된 특별기도는 1)개체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2)총회, 노회, 신학교를 위해서 3)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기도한 후에 중경노회장 진상운 목사의 지도로 특별기도순서를 마치고 교역자회 회장 유남규목사(여울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8월 월례회는 회장 유남규목사가 기도



하고, 서기 이향원목사의 회원 호명에 이어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계 정영태목사의 회계보고 후에 안전토의가 진행되었다.

새 회원 호명과 환영 및 인사 순서를 가졌으며, 다음 회의부터 예배시간에 사모님들께 서찬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주언교회는 지난 1월 22일(토) 설립을 본 개척교회이며 담임 임미향준목은 주중 2회씩 길거리 전도를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임미향준목은 금년 가을 정기회에서 목사임직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개혁선교원 이사회 정기총회

2022년도 1차 정기이사회 개최하다

전북개혁선교원(이사장 김황웅 목사. 효자제일교회)은 지난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북개혁선교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 예배는 상임이사 유남규목사(여울림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법인 이사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하고, 법인이사 신장균 목사(장수은광교회)가 사도행전 2:36~42절을 봉독한 후에 학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가 ‘초대 예루살렘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 예배는 이사장 김황웅 목사(효자제일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어진 회무는 재적 51명 중, 42명(임 7명 포함)이 출석하여 이사장 김황웅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상임이사 유남규 목사의 사무 보고, 감사 정인직 목사의 이사회와 신학교 감사보고, 총무 처장 진상운 목사(에베에셀교회)의 회계보고,



교무처장 김종봉 목사의 신학교 현황 및 학사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동서노회(노회장 신장균 목사)의 가입을 박수로 환영하였다. 또한 임기 만료된 2인의 이사를 동노회 주상기 목사, 양정자 목사로 각각 보선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법인상임이사 유남규 목사는 교무처장으로, 신임 상임이사에 이화중 목사(동서노회)를 각각 보임하였다.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이사장의 폐회 기도도 모든 회무를 마쳤다.

총회 개혁신학연구원 정기이사회

이사장 윤서구 목사, 총장 임종학 목사 재신임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윤서구 목사)는 지난 8월 8일(월) 오후 2시에 총신 강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107회 총회 보고의 건을 준비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는 총원 10명 중 8명이 출석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선 예배는 이사회 서기 진상운 목사가 인도하였으며 회계 김재호 장로가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답후 3:12~17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가 “나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 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사장 윤서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무를 위하여 이사 이경근 목사(전북개신원 원장: 평안교회)가 기도하였다. 서기보고(진상운 목사), 감사보고(김만술 목사) 회계보고(김재호 장로)가 있었다.

각종 보고를 청취한 후에 원장 임종학 목사



의 학사보고와 학과 현황보고를 청취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임기만료 된 이사장과 총장 선거였다.

이사 김만술목사는 그동안 두 분께서 신학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공로를 인정하여 이사장과 총장을 재신임할 것을 동의하니 참석한 이사 전원 이 찬성하여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하였다. 이사 류현옥 목사(동명교회)의 기도로서 폐회하였다.

성황을 이룬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

전북 완주군 소양면 교회연합회 주최; 강사 황호관 목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교회연합회(회장 이경근 목사)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소양면 소재 대흥교회(담임 안창렬 목사) 예배당에서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77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예배에는 소양면 구석, 구석에서 목양사역에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광복을 허락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예배의 강사로 초빙된 본 교단의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는 신명기 8:11~16절 말씀을 본문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한편 이날 예배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드리게 된 예배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광복의 은혜

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복을 받아 잘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 감으로 한국교회가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뻘힌 삼손의 꼴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선 6기 완주군수로 취임한



유희태 장로가 참석하여 광복절 연합예배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전북노회 김정호 목사와 조성운 장로를 부총회장으로
박인규 장로를 회계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전북노회 김정호목사와 조성운장로, 박인규 장로를 제107회 총회 임원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담임)



조성운 장로
(길교회)



박인규 장로
(모악교회)



노회장
박종운 목사

전북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전형규정 제3장 10조와 12조1항에 의거하여 김정호목사와 조성운장로, 박인규장로를 제107회 부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 노회장 박종운 목사 서기 김해수 목사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조직신학)

(자난호에서 이어짐)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주”, “상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을 채택하자고 했지만, 개일 선교사는 토착화가 너무 심해서 결코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에 합당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유일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와 극존칭어 “남”을 결합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볼 수 없는 단어를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참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적인 단어들이 성경 밖에서 사용 되는 것들인데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성경에 없는 “수동적” 혹은 “소극적”이라는 용어가 빚어낸 오해를 염려하여, 레이몬드 교수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그리스도가 결단코 하기 싫어하였거나,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즉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피동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님을 현대적으로 표현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원하고 전적으로 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교훈적 순종” 혹은 “명령적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하였다.

미국 커네티트 신학대학원 피터슨 교수는 능동적 순종을 “일생 동안의 순종”으로, 수동적 순종을 “십자가 상

에서 죽음의 지점까지의 순종”으로 약간 보충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두 용어에 대한 보충적인 해명들을 하는 이유는 16세 말에 두 가지 순종을 강조하던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 사이에, 언어적으로나 철학적인 인식론으로나 많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예 순종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거나, 수동적 순종을 비판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칭의와 전가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놀라운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칭의와 오직 그리스도의 의

로움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전가교리를 가르쳤다. 루터와 칼빈을 위시해서, 위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교리와 의로움의 전가교리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과 왜곡된 개신교 신학자들에 맞서서 칭의 교리와 의로움의 전가를 정립한 종교개혁 후기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에 이르러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중요한 기초로 채용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신학적인 발전과정 부분에서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를 처음 사용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이고,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전가교리의 토대를 구축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칭의론과 전가교리를 정립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하여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다.

칭의와 전가교리의 핵심이자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미 루터가 펼쳐놓은 칭의론의 터 위에서 발전해 나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코 왜곡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넓은 안목에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칭의교리와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핵심에 있는 칭의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 받는다는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논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하다.

(다음호에 이어)

동 정



박형진 목사(총회장, 새은혜교회)
7월29일(금) 총회임원회(화상회의)
8월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설교
8월11일(목) 합동전권위원회
8월18일(목) 2차 합동전권위원회



임종학 목사(경총총회장, 재언교회)
8월 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기도
8월11일(목) 합동전권위원회
8월18일(목) 2차 합동전권위원회



류현옥 목사(경총총회장, 동명교회)
8월 8일(월) 본 교단 총회 실행위원회 축도
8월 8일(월)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전체 이사회에서 기도
8월 16일(월) 전북동노회 여전도 연합회 참여



황호관 목사(경총총회장, 본보사장)
7월 27일(수) 1차 합동위원회
8월11일(목) 합동전권위원회
8월14일(주일) 광복절 연합집회 설교
8월18일(목) 2차 합동전권위원회



정완득목사(경총총회장, 성인교회)
8월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8월15일(월) 공천소위원회
8월18일(목) 상비부 보고



윤서구 목사(경총총회장, 임마누엘교회)
7월29일(금) 총회임원회(화상회의)
8월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8월11일(목) 합동전권위원회
8월18일(목) 2차 합동전권위원회



이경nok 목사(경총총회장, 평안교회)
8월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8월11일(목) 합동전권위원회
8월18일(목) 2차 합동전권위원회



김정호 목사(서기, 한소망교회)
7월29일(금) 총회임원회(화상회의)
8월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사회
8월13일(토) 전북노회 부총회장 추천



김종봉 목사 (부서기, 낙원교회)
7월 29일(금) 화상 임원회
8월 8일(월) 총회 실행위원회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7월 29일(금) 화상 임원회
8월 8일(월) 실행위원회
8월 11일(목) 1차 합동전권위원회
8월 15일(월) 공천소위원회

조직신학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번 호부터는 인간의 구성요소, 인간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인간은 육체, 즉 물질로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원론(monotomous Theory)인데 이는 자연주의 신학자들과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인간의 영혼은 단지 뇌세포의 기능이 된다. 특히 진화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과정 신학을 받아들이는 경우 인간의 영혼은 부인한 채 단지 뇌세포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서방 기독교 신학자들 중 장로교 신학에서 지배적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이원론 혹은 이분설(Dichotomous Theory)이다. 구약성경의 개념 중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했

던 것이 헬라철학자들에 의해 이상과 현상으로 구분되어 이원론적인 철학이 형성됨에 따라 주장된 것으로 동양 철학 중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등 구약 성경을 세속화시킨 형태로 발전되었던 이원론과 같은 개념으로 신플라톤주의가 철학 및 신학적 사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론적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하여 육체는 흙의 먼지로, 비물질적 요소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경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시편 42편 6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라든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영혼들”과 같은 구절로 이상에 언급한 성구들은 영(soul, Spirit)과 혼(Soul)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인간들은 짐승들과 구상 요소 상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전도사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 사용된 혼은 “프뉴마”로써 문맥상 무리가 없는 경우 단순한 호흡 또는 바람으

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 역시 인간을 육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는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물질에 속하는 육체와 비물질적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영과 혼을 합치어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 방법이다. 그러나 영과 혼의 구분이 없다는 결론은 잘못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론은 동방 기독교에서 선호하는 삼원론/삼분설(Trichotomous Theory)이다. 개신교 신학자 중 헨리 피이슨(Henry Thiessen)은 육체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부분이며 혼은 동물로서의 생명의 원리이며 영은 우리의 이상 생활의 원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삼원론자들은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육체는 쓰마로 신포와 피 그리고 뼈를 말하며 영은 프뉴마(spirit)로 육체와 연합되는 경우 생명력(soul, 혼)의 약동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라고 봄으로써 자연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한다고 주장한다. 영은 품성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이 떠나면 혼도 떠나간다. 따라서 혼은 쑤케(soul)로 영과 육체가 연합되는 경우 발생하는 생명력, 이성의 가능, 기억력, 이해력 등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즉 혼은 인간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해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됐을 때 육체는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정지되어 소멸되며 영은 영원한 실체로 천국에나 지옥에 가서 그 존재 상태를 계속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마스쿠스의 요한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오리겐이나 필로와 같은 초대 기독교 학자들이 있으며 근대에는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스타프 오일러(Gustave Friedrich Orhler)와 델리취(Delitzche) 등을 들 수 있다. 삼원론 혹은 삼분설의 이론적 근거는 이분설자들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에서 “생기들”은 복수로 둘 이상을 의미하므로 영과 혼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를 성경적 근거로 들어 혼과 영을 구분해서 사용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구성요소는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성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 할 경우 삼원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론으로 육체는 물질이며, 혼은 육체의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생명력과 그 부수적인 기능이며, 영은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인간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 신학계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분할 경우 가능한 이론으로 수용하고 삼원론은 이를 더욱 구체적 구분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수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옥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2,900,000	전기원	50,000	최현일	50,000
총회신학교	3,000,000	박경남	3,000,000	이하종	50,000
박 형 진	1,200,000	공우는교회	400,000	김해수	50,000
경기 노회	700,000	류현옥	300,000	벤엘교회	350,000
전북 노회	700,000	김일출	1,000,000	김종봉	300,000
전북동노회	700,000	박광식	350,000	길교회	50,000
전북중부노회	200,000	조강희	50,000	김정호	100,000
서울남노회	300,000	신연성	50,000	강대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박연성	50,000	이경근	300,000
경기서노회	200,000	김선영	350,000	이부교	350,000
전남 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박소희	50,000
남부 노회	100,000	박준배	350,000	대한예수교	350,000
박 성 옥	2,100,000	권병락	100,000	정완득	3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설교

첫번째 순교자 스테반

(사도행전 7장 54 - 60절)



장영광 목사
(중경총회장)

스테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상 첫번째 순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스테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역사적 인식을 바로 한 사람

역사는 인간의 과거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스테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가 역사 인식을 바로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점철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 패역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순종과 보답의 역사를 이룰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는 무서운 것이며(벧전4:3), 패역을 거듭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계속 베푸시니(히 13:8) 그 긍휼하심 앞에서 패역을 그쳐야 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니(요일1:9) 끝까지 패역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니(마3:16) 패역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 역사의 패역한 모습을 대변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도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2.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

인간 삶의 성패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생명의 장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테반은 너무 젊은 나이에 폭도에 의해 무참하게 죽었으며 그의 사역의 성과는 한 번 설교할 때 삼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 비하면 두드

러지지 못한 것이었기에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고 넉넉한 열매는 거두지 못했으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열납하셨으니 결국 스테반은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한편 그는 성공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지혜가 충만한 자로 집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자의 삶과 경건한 순교자 상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스테반은 마치 실패한 자 같아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3.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현하는 사람은 그 얼굴 빛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빛이 흐릴 것입니다.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스테반은 삶과 죽음이 기로에서 공포에 싸일 수도 있으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성령충만하여 원수와 꾀박자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 인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사의 모습을 갖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테반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하지만 매 순간 우리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향해 도우시려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테반은 많은 사람에게 말없이 큰 소리로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후에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로 돌아오는 일에 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인식을 바로 하고, 운명을 뒤집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땅 위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고 산 순교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층취재

본 교단과 대신총회 간의 합동 논의의 현장을 본다.

본 총회의 합동위원회(위원장 윤서구 목사)는 대신호서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지난 7월 27일(수), 오전 11시, 본 교단 종로사무실에서 양 교단 합동위원들이 비공식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각 교단의 현 상황과 고려하여 공식 명칭을 합동조정위원회로 정하고 조건 없는 합동을 이루기로 협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신총회 총회장 김의철 목사의 지도하고 회의를 시작하였다. 위원들은 합동 논의의 대전제를 '제105회 총회 당시(2020년 7월 19일) 양측의 위원들이 작성한 합의문(초안)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전격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105회 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이룬 최종합의문 초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총회의 합동위원회는 양 교단의 통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1. 통합된 교단의 공식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으로 한다.
 2. 제106회 총회를 개혁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총회로 소집한다.
 3. 통합교단의 헌법은 개혁교단의 현행헌법을 사용하되, 통합교단의 정체성과 통합의 내역을 서문에 기록한다. 단, 보완사항은 헌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호서대학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신학교로 인준하고 현재 양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5. 총회의 회기 수는 개혁총회의 가수를 사용하되 헌법시행세칙에 대신총회의 회기 변경내역과 통합의 역사를 기록한다.
 6. 제106회기 내에 양 총회규칙의 동일화를 위한 규칙개정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7. 대신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개혁교단의 한국교회연합회의 회원권은 유지한다.
 8. 양 총회가 파송한 7인의 교단통합위원으로 [교단통합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06회 총회의 임원선출을 포함한 통합총회를 준비한다.
- 단, 양측 동수의 규칙제정위원이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의하여 임원, 상비부, 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2020년 7월 19일)

우선 개혁 107회(대신호서 53회)총회를 합동총회로 소집한다.

이들 8월 10일까지 총회별로 각각 결의하고,

5인의 합동위원을 파송하여 10인 합동전권위원회를 조직하되 박형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과 제107회 합동총회장에 김의철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은 개혁교단에 배정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합동총회규칙 초안 위원으로 황호관 목사와 배수영 목사를 선임하여 규칙통일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총회임원 선출(배정)기준으로 정부교치를 원칙으로 하되 서기는 배수영 목사로, 사무총장은 박만진 목사로 정하였다.

합동추진 대략의 일정을 논의하고 합동전권위원회 1차 회의를 8월 11일(목) 오전 11시, 송도 가나안 교회당에서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측 인사의 면모는 이러했다. 개혁총회장 박형진 목사, 합동위원장 윤서구 목사, 위원 황호관 목사, 박만진 목사, 대신호서 총회장 김의철 목사, 총회 서기 배수영 목사이니 양측이 인정할 핵심인사들로 인정되었다.



과연 양측 대표들의 합의를 인정하여 개혁측은 일에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였고, 대신측은 이 7월 28일자로 실행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한편 개혁교단에서는 총회 제106회기 1차 실행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를 지난 8월 8일(월) 오후 1시, 교단 본부 회의실에서 열고 합동위원회(위원장 윤서구 목사)가 청원한 대신교단과의 합동을 추진하고 합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들어 5인 합동 전권위원을 선임하여 개혁총회대표로 파송하기를 만장일치 결의하였으니 총회장 박형진 목사, 합동위원장 윤서구목사와 황호관 목사, 임종학 목사, 이경근목사이며 합동총회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만진 목사를 배석하도록 결의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하여 제107회 총회는 전례를 따라 정상적으로 준비하되 합동 전권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결의하는 주말함을 보았다.

아마도 이는 제105회 총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 여겨졌다. 한편 대신총회에서는 합동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부 인사들의 반발

로 인하여 정상적인 실행위원회가 무산되고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절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5인 합동전권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이른 소식을 접하면서 개혁총회측은 조건 없이 합동을 추진하여 성사시키기로 내부결속을 다져나가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총회장과 합동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예고된 일정대로 합동전권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지난 8월 11일(목) 오전 11시 송도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 특별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계획된 합동총회의 준비에 돌입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 예배는 위원장 박형진 목사가 인도하고 대신총회서기 배수영목사가 기도한 후에 김의철 총회장은 "한마음으로 뜻을 이루자(제3: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 예배는 개혁총회의 합동위원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마쳐졌다.

혁총회 공천위원회소위원들의 협력을 얻어 상비부서, 상비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발지와 같이 배정하여 2차 전권위원회에 보고 자료로 삼기로 하였다.

합동 전권위원회 2차 전체회의는 예고된 8월 18일(목), 오전 11시, 새은혜교회 당회실에서 열고 상비부서, 상비국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조직안을 검토하는 등 합동에 관한 합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 예배는 합동위원회 서기 배수영 목사가 인도하고 위원 이경근목사(평안교회)가 기도한 후에 박공서 목사가 롬8:28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전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대신총회 김의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무에 들어갔다. 회무를 위한 기도는 위원 박공서 목사가 담당하였다. 회원 호명에 앞서 대신총회 위원 최충하 목사를 대신하여 김영식목사

로 교체한다는 보고와 인사가 있었다.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한 후에 위원회의 명칭을 <합동 전권위원회>로 통일하는 등을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배포한 합동규칙을 원안(황호관 목사가 제시한 안을 말함)대로 채택하고, 소위원 모임에서 작성한 별지 기구조직표를 일부 수정하여 반기로 가결하였다.

제107회 통합총회를 이루는데 만 최선을 다하여 어떤 잡음이라도 일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총회장을 포함한 임원만을 전권위원장이 발표하여 제107회 총회를 합동총회로 원만하게 마칠기로 합의하였다.

통합규칙제정과 그에 의한 기구조직 등의 안건은 임원회에 맡겨서 잔무로 처리하되 합동전권위원회와 협력하기로 결의함으로 불어튼튼 오직 합동만을 성사시키자는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지난 105회 총회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치가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합동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확인한다.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150여개 민간자격 &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고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커리어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레스큐자격교육센터만의 혜택 (민간자격증)

- 동영상 수강료 / 시험 응시료 전액 무료 지원
- 100%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
- 자격증 신청시 - 상정형 / 카드형 제공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고화질 강좌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센터장 박 만 진 |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 · 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천양반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혜교회-10만원

어려움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 수 : 2021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더불어 생각할 正論

한국교회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류현욱 목사
(경주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어언 77년 주년이 되었다. 광복절을 맞으며 옛 선구자들의 충고가 문득 새롭게 떠오른다.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36년의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은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어리요, 이 복덩어리는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복음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교회가 실망 덩어리로 전락했다. 교회의 분열과 아픔은 그 나라의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가 싸울 때 6.25가 터졌다.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 3.15부정선거와 함께 4.19의 진통이 있었다. 합동 측 주류, 비주류가 각목 들고 싸울 때 10.26이 터졌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 나라와 경제는 부흥이 되었고, 민주화의 물결은 이 나라에 몰려왔으며, 젊은이들은 세계화의 꿈을 꾸고 살 수 있었다.

1. 복덩어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명을 받기 전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복덩어리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끈기 있게 믿고 나가는 힘이 되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이어야 한다. 우리가 복덩어리라면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적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죽을 수 있다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2.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야 나라가 살아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한국교회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다. 복덩어리가 복덩어리의 길을 걸어가면 앞장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며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복덩어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복덩어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하에 따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 복덩어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3.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 복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 땅에는 골치덩어리, 저주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 덩어리인가? 아니면 복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에 복덩어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내 가정에서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야 하겠다. 이제는 꺼졌던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에서 타오르고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고 맛을 잃어버렸던 소금을 되찾아 우리 한국교회가 복덩어리가 되어 7천 500만 동포들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야 하겠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위에 참 자유를 공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경강해



장영목 목사
(신약학 교수)

오늘은 9:13-21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제양인 마병대 제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당해 있던(7:1-3) 네 천사가 풀려나고 이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세상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게 됩니다(14-16절). 그런데 이와 같은 제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커녕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20,21절)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8:3,4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에 의해 보좌 앞 금단에 향으로 드러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종울산교회 담임)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역설에 의하면 추위가 심해지면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덥히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아픔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 추위를 견딜 수 없으면 다시 다가서고... 물려섬과 다가섬의 끊임없는 진자운동... 이것이 관계, 특히 사랑의 역설이다. 관계가 어려운 까닭은 사상의학으로 말하자면 체질이 다

졌으므로, 9:13의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9:14,5에 나오는, ‘유브라테 강’은 바벨론 제국이 위치하였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유브라테 강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가 일어났던 곳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데, 예를 들면 사 27: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에서 ‘날랜 뱀 리위야단’은 티그리스 강에 세워졌던 아수르를,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은 유프라테스강에 세워졌던 바벨론을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라고 한 표현에서 이만만이란 수는 2억으로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종말에 중국군대의 수

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과 달리) 이 숫자는 구체적인 실제의 수라기 보다는 엄청난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는 고대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추천할 만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9:17-19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성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라는 표현은, 당시의 유프라테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실제 파르티안 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투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말을 탄 궁수들로 이루어진 마병대로 유명했는데, 그들은 말에 탄 채 활을 쏘았고, 달아나면서도 말꼬리 뒤쪽으로 또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과 ‘꼬리’로 해하는 말들의 초현실적인 그림은 그와 같은 사실에 어느 정도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파르티아의 침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무저갱의 입구로부터 막 나온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 또는 옛 뱀’의 군대이며, 그 마병대의 말들은 입으로 ‘불, 연기와 유향’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여기서도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원자폭탄, 중성자탄, 수소폭탄 등을 들어 터무니없는 해석들을 하곤 하는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 “불과 연기와 유향”은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19:20 “유향불 붙는 못”, 20:10 “불과 유향 못”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로, 결론적으로 그 마병대의 말들이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은 지옥의 요소들을 풀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요한은 이렇게 좀 더 궁극적이고 전형적인 악에 대한 느낌을 심어주기 위해 1세기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대상

이나 겔 38-39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9:20,21을 보면,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한번 세상 사람들을 혼내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인봉과 나팔 제양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회개케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할 수 없다(cf. 11:13)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 곳에서 성공하려면 오직 예수의 증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1:13에서는 그들의 희생적인 증거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될 때까지 일곱 번째 나팔을 11:15까지 연가하게 됩니다.

사랑의 역설, 고슴도치

르기 때문이다. 너무나 가까워지면 상대의 온기를 느끼기 보다는 가시에 찔릴까 지레 겁을 먹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가시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상대와 일심동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은 상대와 일주일만 한 번씩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대는 매일 만나기를 바란다.

당신은 매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는 일주일 간격으로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몸에 쌓이는 유해 물질,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이다.

긍정적이어야 할 삶을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아무튼 이때 당신은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이 많은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이유인즉슨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릴 때 느끼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독gas기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배신의 gas기로 찔려서 지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목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양 무리의 목자 장이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되 너무 가까이 하거나 지금 당장 잘 섬기고 충성한다고 해서 절대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하거나 의

지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며, 그 아픔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자신이 사랑으로 섬기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gas기에 찔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넘어 공황 장애로 발전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

그때 필자가 그분에게 위로와 함께 우리의 목자 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해주었는데 나의 권면을 받고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 것을 아셨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께서는 제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으셨다.

또한 주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주린 자들은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으며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셨다(요6:14-15).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랑의 역설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인간의 본성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토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남노회 이다윗 목사를
총회 부서기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서울남노회 이다윗 목사를
제107회 총회 임원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윗 목사
(찬양교회)



노회장
김정용 목사

서울남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전형규정 제3장 10조와
12조1항에 의거하여
이다윗 목사를 제107회
총회 부서기로 추천합니다.

전북중부노회 유남규 목사를
총회 회의록서기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전북중부노회 유남규 목사를
제107회 총회 임원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규 목사
(여울림교회)



노회장
정완득 목사

전북중부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임원전형규정 제3장 10조와
12조1항에 의거하여
유남규 목사를 제107회
총회 회의록서기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
노회장 김정용 목사 서기 이다윗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중부노회
노회장 정완득 목사 서기 박숙희 목사

재 언 의인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의인의 터가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고 있는 혼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기후가 이상하게 변화함으로 지구촌은 유래 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가 하면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목말라하는 곳도 있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함께 극복의 지혜를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공동자선으로 주신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오 미로이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홍수가 나는가하면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코로나, 원숭이두창 등, 바이러스 감염 병으로 정겨운 이웃들이 아파하고 정든 사람이 죽어 가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한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맥없이 슬퍼하거나 괴로워만 할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으면 된다.

우리 개척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구 성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기쁨과 감사로, 함께 꾸려가는 소망과 꿈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소망으로 다가 올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한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일에 착념하여야 한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기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감으로부터 헤아날 수 없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위로부터 임할 것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활짝 펼쳐야 한다. 우리 교단의 활로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교단통합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는 소망의 소식이 전달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그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삶의 장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지 않으면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최고의 비전과 꿈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과거는 우리의 삶의 무안길로 사라져간 시간이며 미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삶의 거울은 될 수 있지만 누구도 사라진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울로 보고서 돈 있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어 살아가는 안 된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에게서는 삶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미래는 아직 밝아보지 않은 처녀지와 같아서 꿈 껴볼 수는 있으나 미래의 일을 가지고 지레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삶은 현재시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나눔의 실천이다. 나눔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풍성함을 만들어 내는 아주 훌륭한 재료이다.

만약에 아픔 속에 있는 어떤 이웃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강도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거두는 심음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눔을 통하여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를 꿈꾸는 의인의 삶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나눔을 위한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것이 본능처럼 행해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자 그것이 곧 최상의 경건이 아니겠는가? 건강한 공동체 삶은 나눔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꽃피고 나눔에서 열매가 맺는다. 우리의 삶에 나눔이 없다면 진정한 미래와 꿈 역시 없을 것이다.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정성교회장, 본보 사장)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본 교단과 연이 없던 대신교단과의 합동을 논의하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으면서 과연 합동해도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무리는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음직하여 대신교단의 창시자요, 한국장로교의 거대단 산맥과도 같은 고봉 (高峯) 김치선(金致善, 1899-1968)목사의 신학사상을 일견 하려 한다.

고봉은 함경남도 함흥(읍 서호리 바닷가 어촌)에서 조부가 40척의 배를 소유한 선주(船主)인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했다. 10대 소년기부터 독실한 신앙과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그

는 3.1운동 시에 함흥지역 책임자로 지목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실형을 살았다.

출옥하여 함흥으로 돌아와 캐나다 파송 함흥선교사 영재형(Luther Lisger Young, 榮在馨)이 가르치는 영성중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하고 1922년에 졸업했다. 영재형은 한국으로 귀화한 흔적 없는 외국인이다. 당시 캐나다 교회는 WCC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연합교회로 기울었으나 영재형 선교사는 거기 합류하지 않고 잔류파 캐나다 장로교회를 택할 만큼 철저한 개혁신의 선교사로 평가받는다. 정신적으로 아주 민감한 청소년기를 개혁신학의 요람에서 보낸 고봉의 그 신학이 오늘의 대신교단 신학적 정체성을 이룬 것으로 본다면 지나친 비아닐까? 김치선 목사하면 사람들의 뇌리에는 대신교단과 대한신학교의 창립자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그 분은 분명 근본주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자로 기억야 한다. 또한 “한국의 예레미야”라 불릴 만

대신교단, 신학사상의 뿌리

큼 강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일찍이 민족 복음화운동의 창시자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봉은 미국 유학을 통하여 신학박사 학위(구약학)를 취득한 엘리트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현장에 투신하여 회개와 복음화를 강조한 말씀 중심의 목회자였음을 제자들은 증거 한다. 그의 목회 현장에는 항상 풍성한 결실이 있었으며, 회개의 복음은 민족복음화 운동의 핵심주제였다.

그의 이러한 회개중심의 목회는 감정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때 더욱 고귀하게 다가온다. 고봉은 설교문과 신학적 유교와 소중한 강의안을 남겼으나 전공분야인 구약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신명기의 모세저작」, 「김치선 박사의 오경과 모세」, 「구약사기(舊約史記)」 외에 학술적 논문이나 저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현장목회에 충실한 목회자 이기를 원했던 소신 때문이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김목사는 1948년 대한신학교를 세

웠고 1951년부터 1960년까지는 총회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면서 1955년에 391쪽이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의 신학저서 『구약사기(舊約史記)』를 출판했지만 한국구약학회는 그의 학술적인 논문과 저술에 관하여 평가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고봉은 <구약사>만 아니라 에스겔서, 소선지서, 그리고 예레미야서까지 폭 넓게 강의하였으며, 회개의 복음은 민족복음화 운동이나 저서가 희소했던 시기에 현재까지 그가 남겨 둔 세 권의 구약 관련 강의의 소개와 평가는 그 분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제자들의 몫이라 생각된다. 구약학자로서의 그의 위상과 공로가 묻혀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고봉의 신학을 근본주의로 평가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얕은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봉은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 일 때,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당시로서는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제3의 교단 설립의 길을 택하여 오늘날의 대신교단을 설립한 것을

두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이다. 고봉은 그의 인격 안에 보수신앙과 애국사상을 간직하고 곁절한 삶의 족적을 남긴 민족 지도자요, 기독교 1세대의 거목으로서 역사적 개혁신학을 계승하고 그 신학을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회개와 민족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다고 평가하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고 싶지가 않다.

이러한 목회 혼을 품고 세운 신학교가 대한신학교요, 그런 신학사상과 목회의 열정을 빼 닮은 대한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대신 교단 소속 목회자들 중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고봉의 그늘에서 자랐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송도 가나안교회요, 그 교회를 이룬 목회자가 우리 개척교단과 함께 제3의 한국장로교단을 세워나갈 꿈을 품은 김의철 목사라던 그와 함께, 아니 그런 교단과 합동하여 그와 함께 일하기를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한 일이 있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단 한건도 없으며 그런 비슷한 기록도 역사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뿐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첫마디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놀랐고도 감사할 뿐이다.

생각하여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 얼마나 경이롭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아닌가? 인간의 필설(筆畵)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실로 세상이 개벽하는 그 이상의 역사요, 감당기 어려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성경 말씀을 따라 가보면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숲에 이르게 한다. 진정 이 땅에서의 놀라운 인도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백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한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서 사도바울은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살아있어도 좋다. 그 나라에 입국할 소망을 이루고 그 은혜와 사랑 전하는 복음을 증거 할 것이나...”라고 고백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름의 특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러한 사도에 비하면 우리 그 믿음과 신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이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는 그 절대적 특권인 아버지와 아들의 엄청난 관계를 부정하며 살아온 꼴이니 그러하고, 이는 어떤 면에서 허탈해 살았다. 바보 같이 살았다. 해서 불신자로부터 조롱을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이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가장 좋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니 더 없는 엄청난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알

지 못하고 누릴 줄 모르고 살아왔으니, 바보 크리스천! 정말 한심한 존재라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라는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바로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의 징계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범죄한 아버지에게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는가? 징계 받는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심정은 후회와 천 갈래 만 갈래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실로 연대감에서나 징계의 수위에서나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물으실 때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다. 모두 자기의 행위로 얻어진 결과이지만, 밧세바가 낳은 어린 아들과 성장한 압살롬, 아도니아, 줄줄이 죽음을 당하고 솔로몬만 차기 임금으로 이스라엘 앞에 선다.

다윗의 슬픔은 밧세바가 낳은 어린 아들이 죽어 갈 때, 급식하며 기도를

통해 그 심경을 드러냈고, 압살롬의 최후의 소식을 받은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장면에서 깊이 느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엄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징계의 뜻을 배우게 된다.

특별히 솔로몬의 안위를 위해 징계를 택하셨을 것이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값이며 다윗으로 깊이 깨닫고 절대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보여주시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은혜는 놀랍고 크시다. 아킬레스건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축복의 유업의 연결선에서는 매우 좋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죄의 값으로 죽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징계를 베푸셨다는 뜻을 배우고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아들 어디 있어?” “저 여겨 친구들과 있어요.” “조심하거라 기다리라.” 다정한 부자간의 대화가 이어질 때 우리 가정과 사회는 마음을 놓는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재 언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2부 : 11:00 주일석양 : 4:30 2부 : 7:3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임 중 학 목사</div><div>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div></div></div>	<div><div>성 언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저녁 : 5:00 수요일밤 : 7:3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강 대 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div>	<div><div>덕 소 제 일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8:00 2부 오전 : 11:00 3부 오후 : 7:30 수요일밤 : 7:3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박 만 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div>	<div><div>평 언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오후 : 3:30 수요일밤 : 7:30 구약예배(금): 오후 7:30</div></div></div><div><div>담임 이 경 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div>	<div><div>광 일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2부 : 11:00 오후 : 3:0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장 명 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div></div></div>
<div><div>모 언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05:00 주일 :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홍 주 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div>	<div><div>소 망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오후 2:00 수요일밤 : 7:0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조 신 애 목사</div><div>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 010-3727-9665</div></div></div>	<div><div>꿈 꾸 는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오후 2:00 수요일밤 : 7:0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황 호 관 목사</div><div>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div></div></div>	<div><div>남 광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오후 2:00 수요일밤 : 7:0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최 갑 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div></div></div>	<div><div>낙 원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05:00 주일 :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 7:0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김 경 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로 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div>
<div><div>화 평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4:30 주일 오전 : 11:00 2부 : 2:00 수요일밤 : 7:30 금요일아 : 오후 9:00</div></div></div><div><div>담임 박 중 목 목사</div><div>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div></div></div>	<div><div>새 목 장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오후 2:00 수요일밤 : 7:00 금요일아 : 9:00</div></div></div><div><div>담임 김 만 술 목사</div><div>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망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div></div></div>	<div><div>중 심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박 경 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면현동, 김산캐비티네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div></div></div>	<div><div>벤 엘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2부 : 11:00 주일석양 : 4:30 2부 : 7:3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박 성 욱 목사</div><div>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div></div></div>	<div><div>한 빛 교 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 5:00 주일 : 9:00 2부 : 11:00 주일석양 : 4:30 2부 : 7:30 수요일밤 : 7:30</div></div></div><div><div>담임 임 용 태 목사</div><div>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div>

기쁨 사랑의 소식

5월 중순 주일에 저희가 속한 스기단체의 이사로 섬기는 목사님부부가 K시를 방문해서 주일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형제들을 위해서 고급식당에서 오찬을 섬기시고는 다음 목척지로 떠났습니다.

주일 오전에 K시에서 개최된 단축 마라톤경기로 인해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가 많을까 염려하였는데 K시에 사는 F자매와 공무원시험이 있는 G형제를 빼고는 모두 참석하여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5월 말 K시에서 사진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S자매(22)와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매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새벽까지 활동하며 정오쯤 깨어서 일과를 시작하는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 최근 일찍 잠에서 깨어나고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서 성경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며 자매가 성경 찬미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 S자매는 이미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받았고 다란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자매는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신 후 홀로된 어머니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력이 강한 적극적인 성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의사 C형제(44)의 아들 M형제(22)는 K시의 의대생으로서 4월 부활 주일에 아버지를 통해서 주일 모임과 성찬식을 지켜본 후 자신의 의지로 계속 주일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 믿음을 가진 S자매와 함께 세례를 위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청년이 양육을 잘 따라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K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늘 새로 믿는 영혼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사역자로서 보람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만난 S형제(23)는 K시의 법대생으로 영어를 제법 잘하는 청년인데 저와 만나기 전에 무슬림의 삶을 포기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후 저희 주일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주 외국인 신자가

많은 Antalya의 공동체로부터 K시에서 주일에 함께 피크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제가 고민 끝에 저희 공동체의 새로 믿은 청년들은 피크닉에 보내지 않고 주일 모임을 갖은 일 때문에 S형제가 불만을 표현했고 양육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S형제는 외국인들이 있는 피크닉에 참석해 영어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 기회를 막았다고 오해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정답이 있어서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제가 K시에서 다른 도시의 외국인 사역자와 교제할 때 주일을 지키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연차가 지날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형제도 몇 년 전 부친과 사별하고 홀로된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인데 형제가 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6월 중, 12년 전 K시의 사역자로 섬기던 A부부가 저희 주일모임에 손님으

로 참석해서 반가운 교제를 했습니다.

A는 피지인 혈통의 뉴질랜드 사역자인데 K시에서 저렴한 체리를 수출하여 현지인 형제들을 고용하는 BAM(비즈니스)사역을 꿈꾸다 빚만 잔뜩 지고 뉴질랜드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A사역자가 손해를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기를 당하며 주를 위해 정직하게 일한 것이 결국 주님께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현지인에게 속지 않으려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A사역자를 통해서 주 앞에 손해 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산에 가면 보이는 게 다 잡초이지만 산의 경향이 많은 약초꾼은 다 약초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문화권 사역자로서 시간이 지나며 형제들에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섣불리 탓하며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다시 깨닫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라도 불구하고 아비가 되어야겠다고 신발 끈을 다시 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T국어로 아베(Abi)는 형이

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 나눌 때까지 동역 자님의 평안을 손 모아 빌니다.

기도 제목

- 1. 세례를 위해 일대일 양육 중인 두 청년 M형제와 S자매가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여름방학으로 석 달간 K시를 떠난 B형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 2. 몰도바인 R자매가 경제적 고통으로 루마니아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T국인 남편이 비자를 받고 다른 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 3. 세례증가로 외국인의 거주 비자를 20% 정도 줄이는 행정지침으로 사역자들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공동체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 4. GMS 사역자 수련회에서 조리 중 화상을 입은 한인 사역자의 두 사모님이 회복되도록
- 후원 권리 : GMP AMERICA(김 기쁨, 사별지절)
check 보내실 곳: 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

제374차 8월 정례회의; 평안교회당에서



전북 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김정숙 권사)는 지난 8월 16 일(화) 오전 10시 30분 평안교회당(이경근목사)에서 제374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배는 연합회회장 김정숙 권사(낙원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평안교회 전도사 윤순일전도사가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사도행전 2:43-47절을 봉독하였다. 은혜의 빛 교회 담임 김금량목

사의 특송이 있는 후에 생명의 빛 교회의 담임 정인직 목사께서 “초대교회 같은 여전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평화의 문 교회 담임 양기만 목사가 봉헌의 기도를 했으며, 연합회 총무 유화순 권사의 광고 후 정인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송전산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에 산회하였다.

장현심 자전 수필



수필가 장현심

시집살이의 갈등은 엉뚱한 데서 비롯됐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데 우린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일하는 아이가 있어도 며느리는 아침에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게 시아버님의 지론이었다. 식사 준비의 전 과정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나를 영 마당까지 여겼다.

또 하나는 친정집집집이었다. 그건 부부 사이에서도 금기인데 아버님은 그걸 자주 화제에 올렸다. 특히 우리 집안의 종교를 들먹였다.

“너희 오빠는 교회 장로라면서 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거냐?” “장로가 그래도 되는 거냐?” “사기꾼은 교회 장로가 제일 많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

었다.

사돈의 가정사를 이리쿵저리쿵 논할 일은 아니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게 기분이 나쁘고 싫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환경에 살며 무엇을 배우길 원해서 이 집으로 물꼬를 뒀을까? 결혼을 배우라는 것일까?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길 원하셨을까? 정신적으로 향유하던 기쁨기가 쏙 빠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될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모란이 피기 전에 상황은 변했다. 시집살이 하면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으려했다.

금요일이 되면서부터 주일에 교회에 가도 지장이 없게끔 미리미리 일을 찾아서 마무리 지었다. 혹시 집안일을 게을리 하고 교회 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서 그랬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한술 더 떠서 주일 아침이면 손님을 집으로 불렀다. 아무 날도 아닌데 동네 어르신들을 청해 음식을 대접하라고고, 딸기를 상자 사와 잼을 만들라는 등, 일거리를 만들었다.

남편은 주일이면 야외로 놀러 가는 척하며 나를 교회로 빼돌려 시아버님 눈을 속였다. 카메라를 메고 교회가 가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번번이 그러기는 싫었다.

결혼 전에 내가 교회 봉사를 게을리한다고 엄마가 걱정하셨는데 시집을 오니 교회에 한 시간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며 나쁜데 가는 것도 아닌데 속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애송겨야 하는가? 약혼식을 하던 날, 아버지는 갑자기 시아버님께 약조해달라며 서두를 꺼내셨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금 부끄러웠다.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남편 될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괜한 안 해도 될 말을 꺼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주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 9일은 휴일이라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삼방을 오시겠다고 하였다. 시아버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했다. 대접할 간식도 준비했다.

시어머님은 동서가 아기를 낳게 되어 울산으로 내려가셨다. 남편은 회사에 가야한다며 집을 비웠다.

집에는 시아버님과 아기와 나만 있었다. 우리 집에 삼방오실 목사님은 우리와는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였다. 약혼식 주례를 해주시기도 하였지만 아버지가 교회에 시무하실 때 그분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전해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일로 청년이었던 그는 목사님이 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약혼식을 주관하고 우리 집까지 삼방을 오시게 된 것이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함께 오셨다.

시아버님께 인사소개를 하려는데 마침 방에서 낮잠에 드셨다. 깨우는 것

도 실례라고 생각하여 일단 우리 방으로 목사님을 모셨다.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웠다. 무슨 소요인가 싶어 방문을 열었다.

“목사 새끼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 “인사도 없이?” “꼭ैया 가져와, 어디 있어? 목사 앉았던 자리, 구둣장을 파낼 거다.”

난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동네사람들의 시선, 주춤주춤 일어나 사태를 파악하려는 방안의 교인들, 팔팔 뛰며 입에 게거품을 문 시아버님. 나는 조그만 바퀴벌레나, 생쥐가 되어 구멍으로 숨고 싶었다.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냥 마루에 서 있었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가며 내 어깨를 감싸 안고 귀에 속삭였다.

“걱정 말아요, 우린 괜찮아요. 기도할 게요.”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시아버님의 그 교함이 들리고 부름

픈 눈이 생각났다.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남편은 나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눈을 뜨면 나갔다가 잠잘 때 들어왔다. 어찌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시아버님께 한 마디 항의도 없었다. 시아버지의 무례는 논할 필요조차 없었다.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손바닥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며느리란 무엇인가에 시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인격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인정머리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도 아닌 시아버지만 너울만 쓰면 며느리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일까? 분노는 콩물 끓어 넘치듯 견줄 수 없었다.

미장원에 미리 예약하여 새벽에 다녀왔다. 아침 밥상을 올리며 식사 후에 할 말이 있노라 눈을 내리깔고 말하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한복을 갈아입고 아기를 목욕시켜 새 옷을 입혔다. 큰절을 올렸다.

“저는 오늘 이집을 나가겠습니다.” 도망치듯 그 집을 나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아버님의 그 교함이 들리고 부름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아버지는 눈이 동그해져서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저는 이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왜 이집의 며느리라서 누릴 수가 없습니까?”

시아버지는 시집에 왔으니 시집 가품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 점은 약혼할 때 아버지와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시아버님은 대답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미 남편에게 실망한 나는 그와는 한 마디 없이 집을 떠났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그와는 앞날을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그 믿음이 깨졌다. 누구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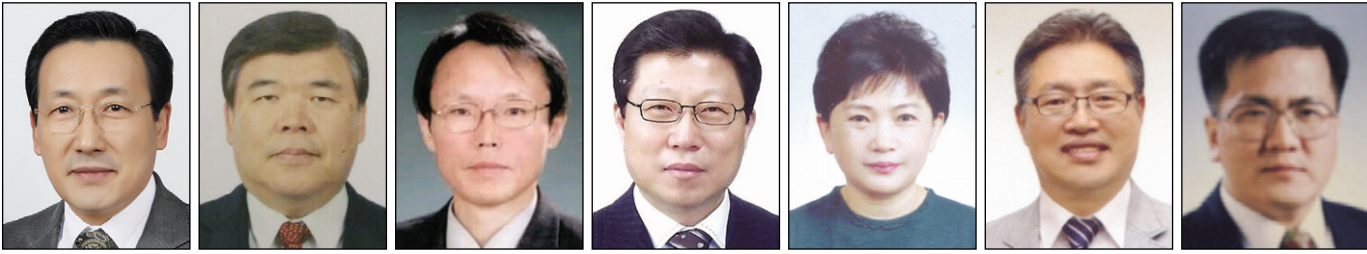
구질구질하게 보파리를 들고, 버스에 시달리기 싫어 예쁘게 화장하고 야기만 사뿐히 안은 채 택시를 타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향했다.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에서의 7년의 유배가 풀렸을 때 이렇게 기뻐했을까. 마음이 가벼웠다. 양어께에 날개가 돋친 듯 훌개분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진로1길 14-3(동신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전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정원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삼천동17)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8:00</div></div></div><div>담임 김양석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예배: 1부 9:00, 2부 11:00 주일 밤 예배: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상가내 전화 010-2301-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3:30 수요일 밤: 7:30 구역 예배(금):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망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충율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오전: 3:00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온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div></div></div><div>담임 이혜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7:30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경 기 노 회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320,000원
박광식 목사 (꽃밭교회) 400,000원
이해동 목사 (사랑은누리교회) 200,000원
박동혁 목사 (선한이웃교회) 150,000원
조혜진 목사 (주영광교회) 150,000원
김병철 목사 10,000원
조경호 목사 (새생명교회) 200,000원

경 서 노 회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340,000원
하예성 목사 (생명줄종포교회) 150,000원
신연식 목사 (디베라교회) 200,000원
김요환 목사 (송악교회) 200,000원

경 성 노 회



박성욱 목사 (반열교회) 400,000원
김진석 목사 (소망교회) 50,000원
진인자 목사 (갈멜산교회) 50,000원
장성덕 목사 (호산나교회) 50,000원

경 중 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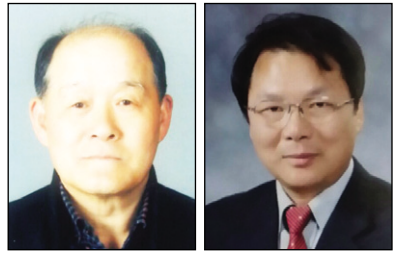
이철영 목사 (은혜로교회) 150,000원
이충년 목사 (영복교회) 460,000원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150,000원
배옥선 목사 (안양강남교회) 200,000원

남부노회



김다은 목사 (온돌교회) 150,000원
이광무 목사 (믿음찬교회) 150,000원

동 서 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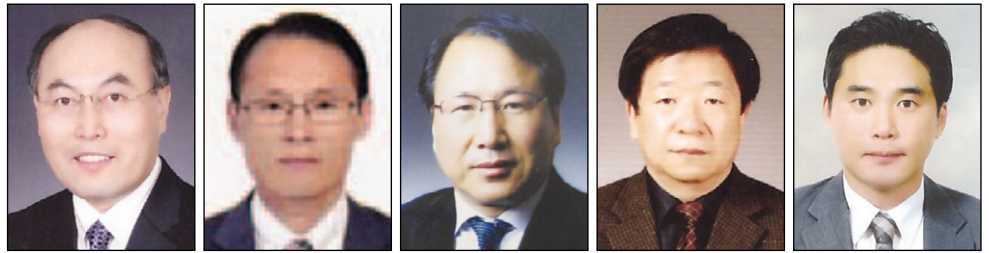
신장균 목사 (장수온광교회) 200,000원
정대진 목사 (온전주교회) 150,000원

서울남노회



강대민 목사 (성현교회) 400,000원
김선영 목사 (비전교회) 200,000원
박춘배 목사 (수원성심교회) 1,500,000원
문만호 목사 (양곡제일교회) 100,000원
김정웅 목사 (종율산교회) 250,000원
이다윗 목사 (찬양교회) 200,000원
김만술 목사 (새목장교회) 250,000원

서울동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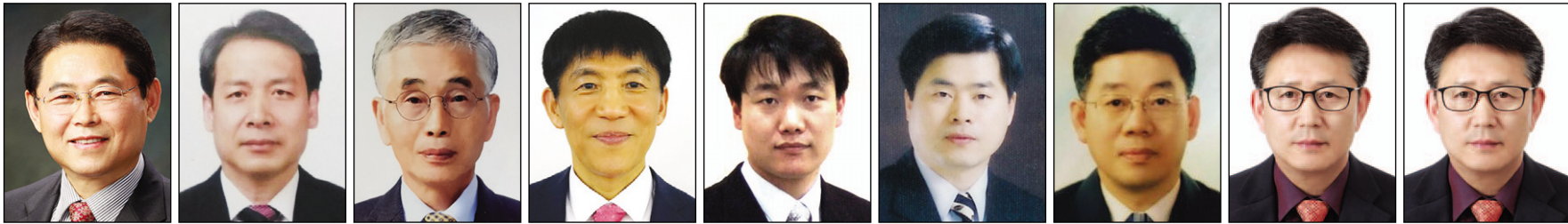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10,000원
김종화 목사 (임마누엘교회) 150,000원
임용태 목사 (한빛교회) 500,000원
송우찬 목사 (은혜교회) 200,000원
노선재 목사 (목사수정교회) 300,000원

전남노회



서용진 목사 (성종교회) 200,000원

전북노회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500,000원
최갑철 목사 (남광교회) 700,000원
김해수 목사 (예수촌교회) 150,000원
이부교 목사 (반석교회) 300,000원
박종윤 목사 (화평교회) 240,000원
홍주일 목사 (모악교회) 300,000원
최영일 목사 (새사랑교회) 200,000원
한권능 목사 (수정교회) 150,000원
한권능 임시목사 (길교회) 250,000원

전북중부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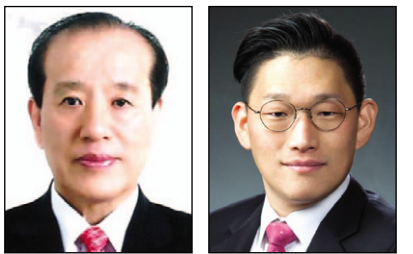
유남규 목사 (어울림교회) 500,000원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520,000원
박숙희 목사 (동산교회) 150,000원
박찬섭 목사 (나눔의교회) 150,000원

전북동노회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500,000원
류현욱 목사 (동명교회) 600,000원
김중봉 목사 (낙원교회) 400,000원
강일신 목사 (더풍성한교회) 150,000원
양정자 목사 (빛과진리교회) 100,000원
정인직 목사 (생명의빛교회) 100,000원
김미희 목사 (동산양문교회) 30,000원
주상기 목사 (좌포은총교회) 200,000원
김관희 목사 (원주교회) 200,000원
채영구 목사 (금상교회) 200,000원

중부노회



이하중 목사 150,000원
진상운 목사 (예뵤셀교회) 150,000원
김규배 목사 (재연교회) 500,000원

대신총회 김의철 목사를 총회장으로, 배수영 목사를 서기로
박공서 목사를 부회의록서기로, 김천수 장로를 회계로 각각 추천합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서 기
배수영 목사



부회의록서기
박공서 목사



회 계
김천수 장로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위와 같이 제107회 통합총회 임원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대 일동